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지킵시다!

9월 15일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만끽하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

CONTENTS

목회서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독교교육 감독회장 전용재	3
설교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설교문 교육국위원장. 중부연회감독 고신일 떡과 칼 (사무엘상 21:1-9)	5
역사	역사가 들려주는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이야기 홍은경 전도사	9
자료	기독교진흥주일 예배문 교육국	14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경공부-비블리오드라마 최임선 부장	17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소그룹 성경읽기 김동준 목사	19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 황아람 선생	23
	9가지 유형, 당신이 교사이어야 하는 9가지 이유 김선희 전도사	27
	너는 ○○과 같은 존재야 최동현 목사	32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아시나요? 홍성주 전도사	39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독교교육

전용재 감독회장

주님의 은총이 목회자들과 교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는 9월 15일은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이 날,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인간 지식의 발전은 하늘을 찌를 듯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갔던 것을 신기해하던 시대가 어느새 지났고, 2030년까지 화성에 인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는 1초가 영상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기술의 발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오기 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왜일까요?

팔머(Parker Palmer)는 이 시대의 문제점은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눈을 말합니다. 사실과 이성의 세계를 보는 정신의 눈(the eye of the mind)과 정신이 보지 못하는 다른 한 쪽의 눈인 마음의 눈(the eye of the heart)입니다. 이 두 눈이 하나 되어 바라볼 때 현실을 균형 있고 온전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이 너무 정신의 눈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정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랑과 따뜻함, 영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눈을 배우는 일 중 가장 지름길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과 성경공부 시간이 학원에 양보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친구와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학원에 양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그들의 생각과 몸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외롭고, 절망하여 상담센터를 찾거나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친구에게 나의 걱정을 털어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나누며 인생을 배워야 하는데, 부모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워 대화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에 힘쓰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이제 부모가 온전한 눈을 회복합시다. 한쪽에만 치우친 눈으로는 온전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해진 부모님의 눈으로 다음세대의 시각을 교정해줍시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줍시다.

이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일은 각 가정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6:7)’.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을 기회로 삼아 다시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설교문

고신일 감독 (중부연회 교육국위원장)

• 본문 : 사무엘상 21:1-9 • 설교제목 : 떡과 갈

사무엘상

21장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본격적으로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긴 나라의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알려진 다윗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부모에게로, 친구에게도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곳이 바로 ‘놉’이었습니다.

놉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다윗이 놉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삼상22:10).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군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을 아무도 모르게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도망 다닌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는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냐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하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떡을 달라고 했겠습니까. 당시 제사장에게 있는 것이라곤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진 떡입니다. 그 떡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레 24:9). 다윗도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

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 떡을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안중에도 없을 만큼 배고팠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군대장관이었던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쳤으면, 자신의 무기도 챙기지 못했겠습니까?

이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고, 배고픔에 고통 받고 있었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성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며,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멘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멘탈붕괴’의 줄임말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정신이 무너졌다, 났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유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멘탈’이 정말 ‘붕괴’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멘탈붕괴’와 더불어 ‘치유’라는 뜻의 ‘힐링(healing)’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방송국마다 힐링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으며, 서점에는 힐링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힐링’을 테마로 한 여행 상품이 인기가 많고, 힐링 푸드, 힐링 뮤직, 힐링 연극, 힐링 카페 등 ‘힐링’ 관련 상표 출원이 부쩍 늘었을 정도로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힐링(치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 찌들고 상처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실태조사(2011년)>를 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519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행복지수 26위, 자살률 1위라는 성적표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운 학생,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 피로에 지친 직장인, 실직의 공포에 불안한 사람들,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 ... 등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는 이런저런 이유로 ‘멘탈이 붕괴’되어가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술집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몸을 흔들니다. 도박, 마약, 게임 등 여러 가지 중독의 수렁에 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갈 만한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다윗이 성막에서 필요를 채움 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단칼 하나 챙기지 못한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굶주린 배와 무기 없는 맨 손으로 성막에 왔지만, 거기서 나올 때 다윗의 배는 든든했고, 그의 손에는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치유되었고, 육신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치유와 회복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 교육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아히멜렉처럼 학생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떡과 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35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였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때에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1970-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한 경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위기를 맞는 경우도 없을 만큼 최근 기독교인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20% 가량이 "최근 기독교를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기독교에 더 믿음이 가게 되었다"는 응답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의 조사에서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 중 기독교인은 17.2%에 불과하며, 그 숫자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단마다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장통합측은 3만 1천명, 감리교는 1만 2천명, 기장(한국기독교장로회)도 6천3백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출산경향과 교인감소를 볼 때 40년 후인 2050년에 한국개신교 교인수는 약 55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중 60~70%가 55세 이상 은퇴자이며, 교회학교 학생은 10% 미만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을 갖고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사야 40:28-31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삶에 쓰러져 지칠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이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학교, 학원, 친구 관계, 가정 문제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독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다음 세대의 부흥’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구원에 대한 열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열망이 열정이 되고, 그 열정이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가 들려주는 기독교교육 진흥주간 이야기

홍은경 전도사 (도봉교회)

‘진흥’이라는 말의 뜻은 ‘떨치어 일으키다’입니다. 신라의 진흥왕은 영토를 넓히며 그 기세를 떨치고 일어나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했기에 그 이름에 ‘진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지요. ‘진흥’의 뜻을 보자면 대단한 패기와 기세를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리교의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떨치어 일으켜야 할까요? 또한 이러한 역동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제정한 기독교교육진흥주간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을까요? 꽃이 피려면 우선 씨가 떨어져 싹이 나야합니다. 1933년, 그러니까 2013년인 지금부터 무려 80년 전에 행해져 대한민국에 기독교교육의 꽃을 피운 기독교교육진흥주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1933년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1

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상황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정조라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주 옛날인 것 같은 정조시대에 벌써 서학이 빠르게 번지고 있었지요. 바로 이 때 이승훈이 조선 사람으로서 처음 영세를 받았습시다. 정조를 지나 순조시대 이후에는 천주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헛갈리는 조선 말기 왕의 순서에서 순조 다음으로 나오는 헌종, 철종을 지나면 고종이 나옵니다. 고종하면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하면 쇄국정책이죠? 쇄국정책에서 천주교는 침략세력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2만 명이 넘게 순교한 1866년의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같은 해에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제너럴셔먼호가 침몰하며 토마스 목사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로 조선에 피와 함께 성경을 뿌려 말씀의 씨앗을 심습니다.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머느리의 반란이 성공하며 조선은 쇄국정책에서 개국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이 때 일본이 약삭빠르게 불평등조약인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 조선의 문호를 개방하게 하였고 이에 질세라 미국이 따라 들어와 1882년 한미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미국이 우리나라에 공사를 파견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보병 사절단을 미국으로 파견했지요.

두둥!! 1883년 드디어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갓 쓰고 도포를 입은 민영익은 가우처 대학 학장인 가우처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우처 목사를 통해 미 감리교회 선교부에 한국선교의 열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가우처 목사는 미 감리교 선교관리자인 맥클레이 박사에게 한국 선교에 관한 편지를 보냅니다. 1884년 맥클레이 박사는 첫 번째로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만남에서 알게 된 김옥균과 함께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을 허락받게 됩니다.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맥클레이의 보고를 받은 미(북)선교부는 1885년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스크랜튼 의사 부부, 그리고 스크랜튼의 어머니 등 5명을 한국선교사로 파견하여 제물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때 미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도 같이 오지요. 이제야 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1884년 김옥균, 서재필 이외의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에 실패하며 망명하는 와중에 윤치호도 상해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미 남감리교회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0년 뒤인 1895년에 귀국하여 미 남감리교회에 한국선교를 청원하여 리드 목사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남감리회의 한국선교는 북감리회보다 10년 늦게 시작됩니다.

2

교육과 의료 사업 뒤 숨겨진 기독교교육의 시작

1885년에 들어온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은 교육과 병원 사업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고종으로부터 허락받은 분야가 그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말쑥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에는 아펜젤러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일에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1888년에는 스크랜튼 여사에게 글을 배우던 여학생과 부인이 주일이면 성경공부를 했습니다. 1886년 선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주일학교가 하나, 배우는 학생은 12명이라고 했지요.

1887년 한국정부가 복음 선교에 대하여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여주자 정동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 등 지금도 역사와 전통 속에 서있는 교회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일학교는 교회개혁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주일학교가 일어났고 그 주일학교로부터 교회가 탄생되었지요.

주일학교가 성장하면서 주일학교의 관리가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04년에는 주일

학교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05년에는 공과가 발행되었습니다. 1907년에는 로마에서 열린 제5차 세계주일학교대회에 우리의 대표를 보냈습니다. 1912년에는 주일학교만을 전담할 선교사가 왔습니다. 1922년에는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탄생하였으며 같은 해 정동감리교회에서는 어린이 100명을 데리고 첫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 교회에 대한 애정의 탄압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압아래 오히려 감리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북)감리회와 남감리회는 1930년 12월에 드디어 기독교조선감리회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총리원이라는 본부 아래 전도국, 교육국, 사회국, 부녀국, 서무국을 두었습니다. 이 중 총리원 교육국이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롭게 조직되면서 주일학교운동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독교교육진흥운동이 시작된 것은 1929년 초교파적 연합체였던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제 3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을 때입니다. 총회의 안건으로 주일학교배가운동이 나왔고 4개년간 주일학교 진흥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흥주일은 9월 셋째주일로 정해졌으며 9월 1주부터 3주까지 진흥운동기간으로 정해 온 교회가 함께 기독교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고, 출석을 장려하며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의 신앙심과 헌신을 권장하는 일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 기독교교육의 현장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3

감리교의 기독교교육진흥운동

총리원 교육국에서도 주일학교 발전방안의 하나로 주일학교진흥주일을 설정하였습니다. 교육국은 주일학교운동의 3대 표어를 다음과 같이 정했지요.

첫째, 주일학교는 교회의 기초이다.

둘째,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세우자.

셋째, 교인마다 학생이 되자.

이러한 표어 아래 여름성경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약 1개월간 여름성경학교를 계속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3-4일 하기도 벅차하는 현재 교회학교와 비교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주일학교진흥주일에 대해서는 1933년 8월 28일자 감리회보에 그 안내가 실려 있습니다.

‘여름철에 농촌은 바쁘고, 도시에서는 산으로 바다로 흩어지는 탓에 자연히 주일학교가 주춤하였다. 이제 가을철이 되어 농촌도 좀 한가해지고 학교도 개학하여 사방으로 흩어졌던 교사와 학생들도 돌아왔으므로 주일학교도 이 때 힘을 내어 주일학교진흥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휴가철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똑같았나 봅니다. 늘 땀을 뻘뻘 흘리며 여름성경학교 해서 학생들의 출석을 최고로 올린 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교사는 큰일을 치루고 난 후에 오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주춤하고, 곧이어 맞이하는 휴가철에 학생들의 마음은 들로 산으로 향하곤 하지요. 따라서 여름행사가 끝나고 나면 늘 교사 위로회를 통해 교사들의 수고를 치하하고, 마음을 북돋아줌과 동시에 학생들을 심방하여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1930년대에도 그러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흥주일 운동을 추진한 방법을 보면 사전 결석교사 방문, 결석생 심방, 신입생을 모집하며 교사회, 학생명부 정리, 집회행사 준비, 환경미화를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르는 음성을 통해 부흥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한 사업으로 교인 자녀마다 주일학교에 나오게 한 것과 학생마다 일정한 의무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독교교육진흥사업을 위해 쓰게 한 일입니다. 1933년부터 2013년까지 80년이 흐르도록 집사님 아들, 권사님 딸들은 엄마 손에 손목을 잡혀 주일학교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9월 셋째 주일 당일에는 학생들에게 꽃을 달아주고 어른과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며 직원 간담회도 가지고 종교교육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교인들에게 주일학교교육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교육을 하는 이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며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어 기독교교육의 진흥을 이루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기독교교육을 위한 작은 축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40년대 일제의 탄압 이래 참으로 다사다난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와중 혼란의 과도기를 면할 길이 없었으며 곧 이은 1950년 6.25전쟁은 3년간 지속됩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많은 교인과 교회를 잃었던 감리교회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500여 교회를 복구하거나 새로 설립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진흥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1952년 9월호 <감리회보>에 주일학교 진흥주일에 대한 지시사항을 실었습니다. 1956년에는 별도의 진흥주일 프로그램을 소책자로 만들어 이후 10년간 각 주일학교에 제공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주일학교 진흥주간>은 <감리교교육 진흥주간>으로, 그리고 다시 <기독교교육 진흥주간>으로 명칭을 바꾸어 철저하게 감리교교육을 재평가하고 진작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감리교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주일학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불씨가 일어난 곳도 그 옛날 남몰래 성경을 배우던 주일학교였으며 주일학교의 귀중함을 알

있던 사람들은 주일학교를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가 부흥할까?’를 고민하던 분들의 열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니 지금의 감리교 주일학교는 옛 선조들의 노력 위에 이루어진 공든 탑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알리고 지키고자 했던 주일학교진흥주간, 즉 9월 셋째주간인 기독교교육진흥주간을 통해 그 열정을 매년마다 다시 펼쳐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독교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교육에 재정을 쏟는 교회의 주일학교로 아이들이 물리고 멋진 공간과 프로그램이 아니면 아이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교육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교사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입니다. 주일학교가 그 무엇보다 앞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재정과 프로그램이 아닌 아이들 한명 한명을 애타게 불러 모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은 분명히 그 눈빛과 목소리에 반응해줍니다. 하물며 온 교회가 힘을 합해 아이들을 품어준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비판과 냉소가 아닌 관심과 격려로 우리의 주일학교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독교교육

예배준비

제단 앞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책상을 마련한다. 이 책상 위에 조그만 여러 개의 화분과, 화분의 수만큼 작은 물병도 준비한다. 화분과 물병은 각 부서의 대표자 수만큼 준비한다. 각 화분에는 대표자의 이름을 써 넣는다. 이날 대예배는 전교인이 함께 예배드린다. 화분은 기르기 어렵지 않은 나무로 준비한다. (예: 고무나무)

초대와 응답

사회자 : 내 자녀들아, 여호와와 법을 잊지 말라

전교인 : 네, 온 맘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사회자 : 내 자녀들아,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전교인 : 네,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네 마음 판에 새기겠습니다.

사회자 : 내 자녀들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전교인 : 네, 나의 명철의 의지하기보다 여호와를 신뢰하겠습니다.

사회자 : 내 자녀들아,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전교인 : 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호와께 묻겠습니다.

사회자 : 내 자녀들아, 여호와와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

전교인 : 네, 여호와와 꾸지람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회자 : 내 자녀들아, 완전한 지혜를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잠언 3장)

전교인 : 네, 은과 금보다 지혜 얻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찬송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아가하도록 돕는 교회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인간의 지식을 알기위해 더 열심을 다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학교 교육보다는,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원교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나를 택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공부하기 보다는, 세상의 은과 금을 얻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어느새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친구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힘써도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불안해지고 초조해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꿈도 점점 희미해 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아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초대

떡과 칼 (삼상21:1-9)

응답으로의 초대

사회자, 대표자

각부서 대표자들이 나와서 화분이 있는 책상 앞에 선다. 장년부, 청장년부, 여선교회, 청년, 중고등학생, 어린이등 교회에서 적당한 수로 대표자를 구성한다.

사회자 :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대표자들 : 네, 하나님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믿습니다.

사회자 :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과 불안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대표자들 : 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겠습니다.

사회자 :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대표자들 : 네,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기

사회자 : 앞에 있는 화분을 보십시오.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주고 가꾸면 어느 때 인가는 아주 큰 나무로 변할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 우리와 함께한 청년과 어린이들,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약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어른들이 나무에 물을 주듯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청년과 어린이들에게 -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합시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정하고 그 일을 위해 매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기울입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어야 나무가 자라듯 말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표하기 바랍니다. 화분 옆에 있는 물병의 물로 나무에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자라듯,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겠습니다.”

물을 준 나무들은 교회 한곳을 정하여 이름표에 있는 대표자들의 책임아래 잘 돌보도록 한다. 한 해가 지나면 다음해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예배에 이 나무를 가져와서 예배드린다.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95장)

축도

비블리오드라마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성경공부

최임선 부장 (교육교재부)

“정말 이상해요. 내 머리가 180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러 여리고도 갔다 왔고요, 예수님과 함께 친구네 집도 갔다 왔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성경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 또 해요.”

처음 제자훈련 20주 코스를 열고 어린이들을 모으는데 참 힘들었다. 학교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형들이 문제였고, 성경공부를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들도 문제였다. 나는 학부형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학부모들의 신앙양심에 호소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제자훈련에 들어갔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20주가 지난 후 어린이들이 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성경공부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어른과 어린이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성경공부 방법이 바로 비블리오드라마로 접근하는 성경공부였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성경에 접근한다. 비블리오드라마 참여자들은 성경의 본문을 통해 기도와 명상, 그리고 해석적 접근을 할 뿐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맥락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성경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한 개인이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서로 어우러져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비블리오드라마 과정은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만나지게 된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후 참석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어요.” 성경공부를 하면서 내가 삭개오가 되고, 삭개오가 내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비블리오드라마 과정은 참가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직접 들어가서 그 인물처럼 생각하고, 그의 심정을 내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하게 한다. 말씀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느끼게 한다. 성경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다가온다. 말씀 속에 들어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캐묻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을 우리 몸과 영혼, 감성과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비블리오드라마는 해답보다는 질문을 더욱 많이 가지며, 그러면서도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지침과 의미를 찾게 돕는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전인적-통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체의 깨달음을 중요시하며 심미적이고 신학적인 작업 모두를 필수요소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블리오드라마는 신체적 운동과 명상은 물론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놀이들 그리고 연극 교육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기초를 형성한다. 다만, 지도자의 능력과 그룹의 관심도에 따라서 비블리오드라마는 그 강조점이 활발한 상호작용에 집중될 수도 있고 심층심리학, 종교교육 또는 신학적인 작업에 열중할 수도 있다. 비블리오드라마와 이와 유사한 다른 치료 작업과의 주된 차이점은, 비블리오드라마 전체 과정이 항상 성경을 원천으로 하여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¹⁾

성서의 이야기와 내가 동일시되는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의 이야기를 나의 몸을 움직여 표현하고, 나의 감정을 담아 표현한다. 그러므로 성서의 이야기가 나의 정신과 신체의 분리를 넘어서서 더욱 깊이 나에게 다가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성장의 경험을 갖도록 돕는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관심을 끌고 있는 비블리오드라마는 성경의 본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을 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경공부 혹은 치유와 회복의 운동이다.

¹⁾ 「Body and Bible : 비블리오드라마」, Bjorn Krondorfer 역음, 황현영 김세준 옮김, (서울: 창지사, 2008.) p189-190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소그룹 성경읽기

김동준 목사 (강서교회)

교회는 신앙이 시작되는 곳입니다(E. Nelson). 그리고 교회학교는 그 싹을 틔우는 생명의 모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미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기에 그의 삶은 성경에 기초를 둔 교회의 경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고 무모한 생명의 사역을 소망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읽기는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교회학교 교사의 소그룹 성경읽기”에 대해 제목에 나타난 단어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 다룰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읽기, 둘째는 소그룹, 셋째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첫째 성경읽기 부분에서는 '무엇을' 읽을 것인가를, 둘째 소그룹 부분에서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끝으로 교사의 사명에서는 '왜' 이러한 성경읽기가 필요한가를 다룰 것입니다.

1 성경읽기

믿음은 성경에서 납니다(롬10:17).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자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믿음을 결단합니다. 교회학교에서 믿음의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곧 성경 읽는 사람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교사의 생활은 성경읽기가 체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을 통해 자신의 죄와 용서하시는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천방지축, 제멋대로 사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배푸신 은혜, 의롭게 하시는 은혜, 성화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죄에 대해 무지하여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곳에서 독자는 먼저 배푸신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롬5:8). 웨슬리의 구원의 서정(회개-칭의-거듭남-성화-완전)의 첫 단계인 회개는 먼저 배푸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잘 나타납니다(눅15장).

의롭게 하시는 은혜는 회개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은혜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은혜의 현장에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인간의 겸손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결단과, 죄인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화케 하시는 은혜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사를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결단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이야기들입니다. 강의실에서 아래의 본문을 함께 읽으며 세 가지 은혜와 우리의 죄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창세기 3장 • 룻기 3장 • 삼상 17장 • 삼하 11-12장과 대상 20장 비교

2 소그룹

우리는 성경을 이웃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십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서 발휘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의 죄인의 모습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삶이 변화됩니다. 실제로 이 변화는 개인적, 이기적인 삶이 공동체적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일어나고 경험해야 할 교회의 경험은 공동체적 말씀 경험입니다. 이것은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고백과 기도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좌우에 날선 검에 비교되는데(히4:12), 여기서 좌우의 예리한 날이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 나의 연약함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의 의미와 생활에서 경험된 스스로의 한계를 신뢰할 수 있는 소그룹에서 솔직하게 나누는 '작은 교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직후부터 나타난 개신교 경건주의의 특징이며, 감리교회의 부흥 원리입니다. 또 이것은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 확정된 개신교의 복음적 성례와 예식에서 빠져버린 고백의 전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크리스천 지도자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책임질 줄도 알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자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학교 교사들부터 고백하고 기도하여 능력 받아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의 경험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 말씀의 은혜와 생활의 실패를 고백하고, 그에 대해 정죄가 아니라 위로와 기도를 나누는 교회의 경험을 통해 교사 스스로가 더욱 진실하고 따뜻한 영적 지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보다 책임 있는 미래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고백의 전통을 상실하면 그 구성원들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롬8:16),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이들은 필연적으로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며 의를 주장하는 바리새인의 누룩(눅12:1)에 중독됩니다. 사탄의 유혹은 '좋은 일을 혼자 하라'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선한 일을 함께 하라'고 명하십니다. 성경을 혼자 읽으면 말씀에 대한 영적책임의식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실천 없이 화석화되면 복음의 능력도 화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는 언약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3

교사

끝으로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이자 동시에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성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약3:1)는 교회학교 교사에게 부담스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삶의 기초를 삼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의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제자들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목적이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야 합니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겪는 모든 어려움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는 바울의 다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사의 삶과 사역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신 것과 둘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고후4:5).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마16:23).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의 길에는 14군데의 사건이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 즉 십자가의 길 첫 번째 장소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곳은 죄 많은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한 곳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어처구니없이 억울함을 받아들이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십자가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십자가의 길에서 입은 상처를 고치시는 위로와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이며,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소그룹의 경험을 통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겪은 상처를 말씀의 위로를 통해 치유함 받고 새 힘을 얻어 이 길고 무모한 사명의 길을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날개를 달아주는 교사

황아람 선생 (아트코칭스쿨 무지개도마뱀 개인코치)

얼마 전 저희 교회 유치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도사님께서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복 받았다는 말 들어봤지요? 복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복이라고 할까요?”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경쟁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거요!” “부자 되는 거요!” “장난감 많은거요! 전도사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도 복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몇 명의 아이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주일 유치부 예배 때 6살짜리 여자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담임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부자예요?” “그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 그런데 부자가 된 줄 아니?” “네. 돈 많은 거요.” “그렇구나. 돈이 많은 건 좋은거니?” 무척 진지한 얼굴로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나님이 부자면 좋겠어요.”

가르치던 학생 중 한 명이 야외수업을 하던 중에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세상에 혼자인 것 같다는 생각해본 적 있으세요?” “응? 있지. 너도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구나. 무슨 일 있었니?” “전에..... 엄마 아빠가 저희 앞에서 집 안의 물건이 다 부서질 정도로 심하게 싸웠는데요. 엄마는 집을 나갔었구요. 아빠와 동생이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순간 세상에 저 혼자만 버려진 것 같더라구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가정에 얼마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는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 각 각의 입장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갑작스러운 고백이 당황스럽고 안타까웠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줘서 감사하기도 했고 나한테라도 슬픔을 토로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 흥분해서 찾아 온 학생 하나를 저녁을 먹이면서 달랠 마음으로 분식점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선생님 전 이 동네를 떠날 거예요.” “그래? 너 화가 많이 났구나.” “저희 반에 아빠하고만 살아서 잘 안 씻고 지저분하고 공부 못하는 남자애가 있는데 애들이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다못해 그 아이 편을 들어주었더니 애들이 저까지 왕따 시켜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나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저분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한 명한테 그렇게 많은 애들이 상처를 주고 틈만 나면 가서 괴롭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시죠? 집도 부자고

공부도 잘하잖아요. 카스(카카오스토리) 글 쓰면 댓글이 백 개도 넘게 달려요. 개는 진짜 왕싸가지거든요. 아시잖아요?” 이 학생은 결국 부모와 상의한 끝에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과 불안은 생각보다 깊고 넓게 퍼져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하고 날이 서서 신경질적이며 서로 간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을 편하다고 여기고 한 동네 살아도 성실하게 인사하는 사람을 되레 별종 보듯이 하기도 합니다. 왕따나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공포가 믿음을 가진 부모들조차 심하게 흔들립니다. 또한 돈과 지위에 대한 불안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풍요의 시대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겪을지 모르는 막연한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극도로 제한된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자리를 너도 나도 맹목적으로 지향하다보니 부모들은 아이들이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갖은 장치를 마련해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자니 현실이 팍팍하여 여유가 없고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냉혹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아이들을 닦달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공부공부’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요. 4당5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 3때 하루 네 시간 자면 대학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고 1때부터 4당5락이라고 합니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의 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감옥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응답한 아이들의 비율도 예상외로 꽤 높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처한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가족 간 소통의 부재, 가정의 실직, 지속적인 경제 불황, 편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둘 데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하는 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아정신과마다 예약이 넘치고 각 종 심리검사와 심리치료가 넘쳐납니다. 어른들의 가치를 강요당해 이러 저리 끌려 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날개가 꺾여 날지 못하는 새처럼 처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아이들이 더 잘해주기 원할 때, 아이가 결석할 때, 아이가 예배 중에 한 눈 팔 때, 친구들과 말다툼을 할 때,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바닥만 쳐다보고 있을 때, 교사에게 뼈뺀 말투로 시비를 걸어올 때 즉각적으로 그 행동을 수정하려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교사의 행동일 것입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 하는 조언이나 잔소리는 실제로 아이들의 반감을 사게 되어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를 가진 아이도, 주일학교에 열심히 출석하는 아이일지라도 마음 한 구석에 건디기 힘든 혼돈과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이해해보도록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의 입장과 감정을 존중하고 경청해주시고 역할전환을 해서 내 자리가 아닌 아이의 자리에 서서 바라봐 주세요. 말은 쉽습니다만 난감할 때가 무척 많습니다. “저 놈만 아니면 내 20년 교사생활 끄떡없겠구먼……. 내가 그만두는 게 낫지……. 주님 야속하기도 하시지……”라고 말하게 만드는 아이가 있습니까? 문제 행동을 해서 곤란한 상황을 반복해서 만드는 아이일수록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지만 표현방법을 몰라 하는 행동들입니다. 눈물의 기도만큼 큰 사랑도, 좋은 해결책도 없습니다만 사랑에도 약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들이 있지요. 모든 인간은 대상이나 현상 등을 바라볼 때 각 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사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강하게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제하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질대로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사인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된 성격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어떤 아이는 모범적이지만 완벽을 추구해서 자신에게나 타에게나 올바르게 요구하고, 어떤 아이는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자신의 욕구에는 소홀해 지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유능하고 멋있게 보이는 것을 좋아해 무엇이든 잘해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인색하고, 섬세하고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나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보통 아이와 다른 주제의 이야기에 대해 고민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말이 없고 부끄러움을 잘 타며 혼자 지내는 것을 편하게 여기며 논리적이고 객관적이며 짧은 해설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어떤 아이는 충실하고 교사를 멘토로 삼아 따르기를 좋아하지만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 확인 차원의 질문이 많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공격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호기심이 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난도 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집요해지지만 갈등이 생기면 회피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친구들을 잘 돌봐주고 약자를 대변하기도 하지만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순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평화를 좋아하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웅고집을 피우거나 한없이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성들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기질적 특성들을 잘 안다면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성경공부를 할 때 반응이나 아이들끼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보다 쉽게 깨달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기질적 특성을 고려해 꿈을 찾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며 각 자 고유의 성격이 있고 그 기질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르지 않은 것은 두고 보지 못

해 유대인을 박해하던 바울이 회심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십시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음 둘 데 없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시오.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의 특성을 알고 지지해준다면 아이들의 심리적 방황과 공허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못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신다고 할 때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 아닙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소명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꿈을 꾸고 스스로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의 건강한 미래가 되어 줄 것입니다.

‘9가지 유형, 당신이 교사이어야 하는 9가지 이유’

김선희 전도사 (은성교회 / 한국에니어그램 연구원 인증 코치)

1

‘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

우리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각각 사회 모든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것까지 추가한다면,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찾음으로 교회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가정안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을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약점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더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거나 약점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신을 찾을 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이해는 너무 일반적이기에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진정한 ‘나’를 찾을 때,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마 13:44).

그리고 진정한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땅을 산 것처럼, 그 사명이 강하게 우리를 이끅니다. ‘나’를 찾는 것은 그 보화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2

크리스천 에니어그램 - ‘나’를 찾는 여정

‘나’를 찾는 여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 방법 중 최고는 마치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에니어그램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분별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소개합니다.

현대에 소개된 에니어그램은 일종의 성격유형 체계로, 9가지의 에센스(essence)와 에고(ego)를 중심으로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분류합니다.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에센스(essence)를 인간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속성 혹은 은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고(ego)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짓된 ‘나’로 봅니다. 에센스 안에는 미덕과 신성한 사고가 있습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 그 영혼을 부여받은 순수한 상태에서는 그 유형에 따른 미덕과 신성한 사고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상에 나옴으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은 에센스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결국은 거짓된 자신인 에고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덕은 걱정으로, 신성한 사고는 고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인간은 에센스를 잊고 에고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먼저 거짓된 자신인 에고유형을 파악합니다. 그런 후 잃어버린 자신의 에센스를 찾고, 기도, 말씀, 묵상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 에센스를 회복합니다. 즉, 크리스천 에니어그램은 진정한 ‘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나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 각자의 은사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하는 것입니다.

에고(Ego)에서 에센스(Essence)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에고에서 에센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모든 유형을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 지면 관계상 에니어그램 1유형만 살펴봅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 1유형의 에고인 분노의 걱정과 판단의 고착이 어떻게 평정의 미덕과 완벽의 신성한 사고로 회복되는지 살펴봅니다.

1유형의 본질은 평정과 완벽함입니다. 이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면 1유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한 모든 것과 신성한 것들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1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상을 위해 원칙적이며, 목적지향적이며, 의무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명예롭고 온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완벽주의자가 되고자하고, 주위의 실수와 결함들을 강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도덕적 의무라고 여깁니다. 이때, 1유형은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1유형은 완벽한 이상과 실제의 완벽하지 않은 세상 사이에서 오는 내면의 혼란과 자신 안에 완벽하지 않고 결함이 있는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에니어그램 1유형의 영적인 여정의 좋은 예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탄생부터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다소라는 로마 속주의 도시에서 탄생합니다. 이 탄생은 그 당시 로마 제국하의 유대인으로서 좋은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가장 적지만 위대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파였고, 다소라는 곳은 문화와 교통, 무역의 중심지이며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 또한 자부심을 갖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정통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이며, 당대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았던 랍비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다소에서의 삶은 헬라 철학에도 정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완벽한 유대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지키고자 하였고, 그 결과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더 열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빌 3:6).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는 그의 에고의 에너지인 분노의 걱정과 판단의 고착에서 나왔습니다. 율법은 그에게 판단의 고착을 더 강화시킴으로 자신만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였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의 걱정으로 더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하게 됩니다(행 9:1-9).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1유형의 에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의 걱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했고, 판단의 고착의 역시 자신의 기준에 부족한 교회를 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센스를 회복하는 경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13장은 바울의 분노와 판단의 에고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쟁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가장 모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쏟아 세운 교회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구차한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까지 하게 된 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바울에게 참을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노가 극에 달하고 모욕적일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바울은 에센스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7-10의 내용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놀라운 영적경험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를 완벽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받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완벽해지기 위해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완벽을 추구하는 바울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입니다. 사탄의 사자는 완벽함이나 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완벽해지고자 하는 에고를 내려놓고 불완전함에 감사하고 그의 약함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럼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를 수 있었고,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의 미덕과 신성한 사고의 완벽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에 완벽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완벽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흘린 피에 계셨으며, 모든 인간의 깨진 인간성에 계셨으며, 그 연합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 안의 1유형의 에센스를 회복함으로

우리 모두는 완벽을 추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된 성격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우리 모두가 1유형의 에고와 에센스를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판단과 분노를 일으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런 우리가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자신과 세상 주위에 주어진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선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모든 선함과 신성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전국교사대회에서 ‘9가지 유형, 당신이 교사이어야 하는 9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크리스천 에니어그램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남은 8가지 유형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에센스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 평창에서 뵈겠습니다.

“너는 ○○과 같은 존재야”

최동현 (충주에덴교회 | 비거게임 한국리더)
요한복음 1:38~42

32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독교 교육

개요

‘코칭’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과 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힘들고 주저앉게 되지만 있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기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이 생각보다 크면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혹은 회복)가 가능해집니다. 본 교재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기독교 교육’에 ‘코칭’으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학습목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나의 탁월성’을 찾는다.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여할 뜻을 품는다.

1

마음으로 듣기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42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몬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수 위를 걸겠다고 자청하고 걷다가 빠졌으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칼로 베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서는 세 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처음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가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많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

당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는 ○○과(와) 같은 존재란다.’ 이제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선물로 주셨던 ‘나의 탁월성’을 찾아 떠나 볼까요?

2

몸으로 경험하기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눈에는 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여러분을 통해 보였을 것입니다. 본 활동¹⁾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선물해 주신 ‘나의 탁월성’을 찾습니다.

1) 찾는 방법

- ‘첨부1(나의 탁월성 단어 찾기)’을 가지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 ‘나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 3개를 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상대방이 불러주는 대로 ‘첨부1’에 적습니다.
- 여러분도 그 친구를 볼 때 떠오르는 단어 3개를 말해 줍니다.
-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갑니다.
- 10명을 만나 30개의 단어를 적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 마지막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 3개를 적습니다.
- 30개 단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3개에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2) 확인 방법;

- ‘첨부2(나의 탁월성 단어 확인하기)’에 세 단어를 적습니다.
- 소그룹인 경우 한 사람씩 발표하게 하고 박수로 축하합니다.
- ‘확인하기’는 선생님이 한 명씩 말해주거나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 합니다.

3) 활용 방법

- 탁월성을 찾은 느낌과 감정을 적습니다.
- 여러분이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여할지 적습니다.
- 선생님은 학생들이 적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¹⁾ 폴정 · 우수명, 『5R 코칭 리더십』아시아코칭센터, 2012, 40~43쪽.

삶으로 실천하기

- 탁월성 단어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보일 때마다 생각합니다.
-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내용을 적고 구체적으로 실천합니다.
-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사람들과 각자의 탁월성을 소개합니다.

나의 탁월성 단어 찾기

인터뷰하기

주위 사람 10여 명에게 “나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 3개를 말해 달라”고 요청한 후 아래 표에 적어보세요. 다 적은 후에는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 3개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나의 탁월성 단어 찾기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
1			
2			
3			
4			
5			
6			
7			
8			
9			
10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

たく월성 팀워크 쾌활 협동 프로정신 영향력 파워 모험 조화 의지력
인내 자기기발판 판단력 열정 실천력 세련미 균형 결단력 용기 배려
겸손 긍정적인 태도 성실 자기표현 자유 독립심 끈기 성장 의리 주도성
헌신 온화함 신념 유머 통찰력 포용력 리더십 전문성 영성 정의
정직 사랑 존경 감성 추진력 진실성 지혜 창의성 충성

Copyright © Asia Coach Center, All rights reserved.

나의 탁월성 단어 확인하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존귀한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의식하고 말하면 내 안에 자신감과 힘이 생깁니다.

앞에서 선택한 나의 탁월성 단어 3가지를 적고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나 ()는(은)
(), (), ()의 사람입니다.

*위의 선택한 3개의 단어를 빈칸에 넣고 파트너가 소리 내어 읽어 줍니다.



나는 당신이 ()해서 좋아요.
내가 당신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을 진짜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하기 때문이에요.

*위의 선택한 3개의 단어를 빈칸에 넣고 파트너가 소리 내어 읽어 줍니다.

.....

.....

.....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탁월성을 찾는 느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아시나요?

홍성주 전도사 (분당교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및 주간이 올해로 80회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는 교회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해마다 교육국에서는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 교회교육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확장되고 연결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기에 가정과 연결된 프로그램 등 개교회가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지키는데 필요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 왔다.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올해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는 것이 어떨까?

1

“쉐마”의 말씀과 함께 하는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신앙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달’이고 ‘연결’이다. 이어달리기 선수들이 나의 손에 바통이 들려졌을 때 죽을힘을 다해 달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잘 연결해 주어야 하듯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일 것이다.

신명기 6:4-9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모세를 통해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다. ‘들으라! 이스라엘! 쉰마 이스라엘 Shema Israel’로 시작해서 ‘쉰마’의 말씀이라 불리어지는 이 신명기의 말씀에는 교육의 핵심인 ‘전달’과 ‘연결’이 잘 나타나있다. 몇천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가치관의 중심이자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이유 역시 바로 그 점 때문이다.¹⁾

유대인의 부모는 쉰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의무를 신성한 부모의 책임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지킨다. 그들은 자녀가 말을 배우면 제일 먼저 쉰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날마다 반복하여 가르친다.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7절에서 말하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는 기회가 있을 때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항상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을 기회를 집에서나 밖에서 만들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밤낮으로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와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여 ‘말씀 맡은 자’로 키우라는 것이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적 가르침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생활에서 실천하지 않고 후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더라면 그 효용성과 영향력은 분명히 한 시대에 제한되고 말았을 것이다. 무려 수천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 엄연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적 유산 역시 더욱 돋보이는 것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신앙과 경건한 삶을 후손들에게 성실히 전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명기에 나타난 ‘쉰마’의 말씀과 ‘쉰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교육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육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이번 기독교교육진흥주일에 어린이들과 함께 쉰마의 말씀을 나누고 유대인들이 지금도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하고 다니는 테필린 Tefillin과 메주자 Mezuzah 만들어 보려고 한다.

¹⁾ 한용수 저,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쉰마」, (도서출판 쉰마, 2006)

테필린 Tefillin²⁾, 메주자 Mezuzah³⁾

‘네 손에 매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문설주와 대문에 써 붙여라’란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토라의 구절이 적힌 작은 가죽주머니를 두 팔에 묶고 말씀이 담겨있는 검은 함을 가죽 끈으로 연결하여 이마에 묶었는데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한다. 머리에 묶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또 심장에 가장 가까운 왼 팔에 말씀을 감으면서 그 말씀을 내 심장처럼 귀중하게 여겨 내 마음으로 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테필린을 이마에 두른 모습은 다소 억지스럽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테필린을 이마와 손목에 매는 그 행위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의 정체성과 나의 신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메주자란 ‘문설주’란 뜻의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집 문설주나 대문에 붙여놓은 조그만 말씀이 담겨있는 상자로 이 안에도 역시 신명기 6장 쉘마의 말씀이 적힌 양피지가 들어 있다. 메주자는 각 가정 뿐 아니라, 학교, 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건물, 심지어는 공항이나 호텔까지 이스라엘 건물 어느 곳이나 붙어있는데 그 재질이나 형태, 문양이 다양하다. 집을 드나들 때 쉽게 발견하도록 사람평균키에 맞춰서 부착하는데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마다 손으로 메주자를 만지고 그 손을 다시 입에 대는 입맞춤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일종의 신앙교육인 셈이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랍비는 문설주의 메주자는 온 가정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한다. 만약 나의 손과 이마에 또 매일 드나드는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수시로 그것을 보고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겠는가? 좋은 삶든 하나님의 의식하며 살게 되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쉘마’의 교육정신이다.

²⁾ 필린은 보통 <성구함聖句函>으로 번역되는데 본래의 의미는 <부적>이란 뜻이다. 어원에서 보듯 테필린은 무엇인가로부터 혹은 무엇인가를 보호하기 위한 부적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테필린의 어원은 기도한다는 테필라tefilah와 재판한다는 페 라메드 נֶפֶשׁ의 어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때 테필린을 사용하고 아침기도가 끝나면 풀었다.

³⁾ 루스실로 저, 『자식은 유대인처럼 키워라』 도서출판한글, 1997 / 박재선 저, 『세계사의 주역유대인』, 모아드림, 1999 / 손해신 저, 『유대인& 이스라엘있는그대로보기』, 선미디어, 2001 / 전성수 저, 『자녀교육 혁명 하브루타』, 도서출판두란노, 2012 / 권혁승 저,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생활』, 서울신학대학출판부, 201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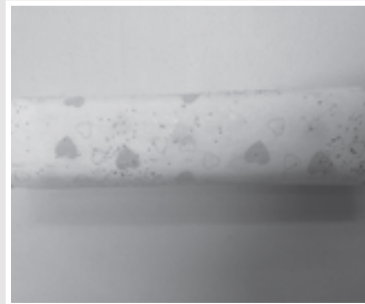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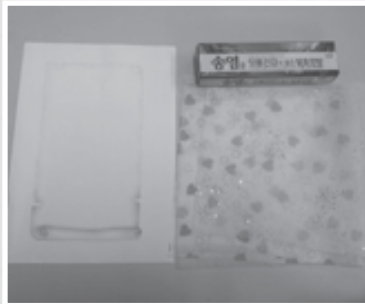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만드는 메주자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려보자!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관련된 부모님의 신앙 간증을 함께 나눈다. 기도 응답받은 일들이나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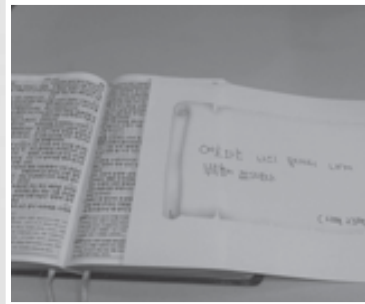
메주자의 특별한 형태나 재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금속이나 나무, 유리 등 다양한 재료에 다양한 무늬로 자신만의 메주자를 만들어 보자.

제안 ①

- 롤로 되어있는 키친타월의 심을 색상지나 포장지 등으로 감싸고 그 위에 색종이나 스티커로 예쁘게 꾸민다.
- B5 또는 A4 크기의 종이에 우리 가족만의 성경구절을 적는다. 한절씩 돌아가면서 정성껏 말씀을 적는다.
- 말씀을 적은 종이를 돌돌 말아서 꾸며놓은 통에 넣고 현관문에 양면테이프 등으로 붙인다.
-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 그 안에 담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기로 약속한다.



제안 ②





말씀 액자도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교회학교에서 어린이의 숫자만큼 말씀 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준다. 한 주전에 어린이들과 공과활동으로 함께 만들어도 좋고, 교사들이 만들어 나누어 주어도 좋다.
- 액자의 형태는 교회마다 다양하고 좋은 노하우가 있을 줄 믿는다. 말씀을 직접 적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의 액자를 만들면 OK!!
- 말씀판을 집으로 가져가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가정의 말씀을 정하고, 판에 적는다.
- 기독교교육 진흥주일이 되면 우리 가정의 말씀 판을 교회에 가져와서 전시한다.
-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나눈 말씀에 담긴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도 좋다.

4

교회에서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테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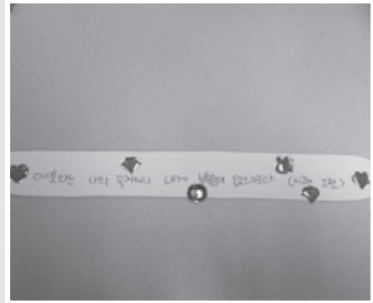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PPT로 테필린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머리와 손목에 매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

제안 ①

- ‘저절로 감기는 팔찌’보육사 등에서 구입와 어린이들이 암송하면 좋을 성구들을 적은 카드를 준비한다.
- 어린이들이 말씀 카드를 하나씩 뽑아 네임펜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팔찌에 옮겨 적게 한다.
- 스티커로 말씀 팔찌를 예쁘게 꾸미게 한다.

제안 ②

- 교사가 미리 5×3 사이즈의 색지에 말씀을 인쇄해서 오린 후 코팅해서 구멍을 뚫어 놓는다.
- 어린이들이 직접 비즈를 끼우고 코팅된 말씀 카드를 끼워 팔찌를 만들어 보게 한다.

**5****교사들을 위한 기독교교육 진흥주일**

한 교사의 순종과 헌신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내가 가르친 우리 반 아이가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이다.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키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교사의 사명에 대해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제안 ① 믿음의 Barton Touch 스킷 드라마

불의 전차 음악이 흐르고 육상 선수의 복장을 한 선생님이 바통을 들고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간다. 적당한 거리에 다음 주자가 되는 어린이가 같은 육상 선수의 복장을 하고 달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선생님이 전해주는 바통을 받아 들고 역시 슬로우 모션으로 달려 나간다. 리본 등으로 피니시 라인을 만들어 통과하면 주변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다. 그 바통을 펼치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 등의 단어들 써있다.

제안 ② 간단한 퍼포먼스

이스라엘에는 메주자, 테판린과 같이 ‘메노라Menorah’라는 전통적인 촛대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시작되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촛대에 불을 밝힌다고 한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불을 잘못 관리하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절대로 꺼트리지 않고 지켜야 하는 불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지만 기독교교육 진흥주일과 관련하여 그 불의 의미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며,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

교사 헌신예배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촛불 전달예식을 해보면 좋겠다. 교사들이 촛불 전달예식을 통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이길 진정한 믿음 등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전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사들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열정과 교사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붙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안 ③ 아동부 예배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

게임을 통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역자나 교사들의 수고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A4 용지에 교육에 관련된 말씀들을 적고 코팅을 하여 3장 ~ 5장정도 준비한다.
- 한 명의 교사가 그 말씀 카드를 번갈아 어린이들 발 앞에 놓아주어서 어린이들이 건널 수 있는 말씀 징검다리를 만들어 준다.
- 일정한 거리를 정해 놓고 어린이들은 교사가 만들어 준 말씀 카드 징검다리를 건너간다.